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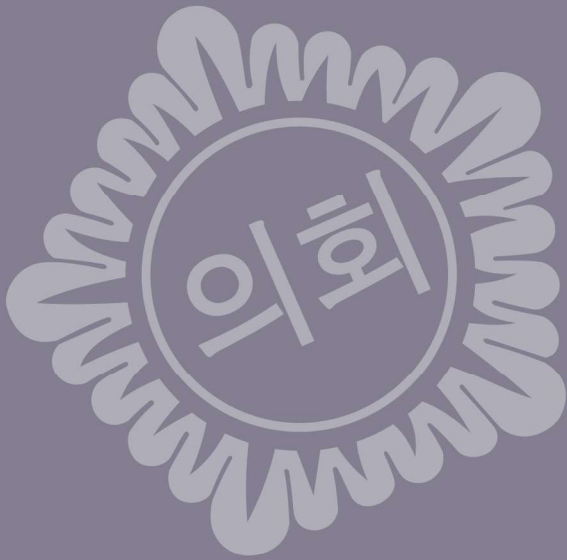


의정부시 의회소식

제 50 호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움직이는 의회





46만 의정부시민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현장중심의 움직이는 의회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북부 수부도시 의원의 긍지를 갖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참된 의원상 정립을 위한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우리 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청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윤리도덕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참된 의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한다.
- 전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 의정활동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합의하에 해결하며 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발행인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
편집인 조민식 의회 사무국장
발행처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제작부서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의회홍보팀)
발행일 2021. 7.
제작총괄 황수진 의회 홍보팀장
취재편집 박지선
사진 이영복
주소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42
팩스 031)828-2529
홈페이지 www.ujbcl.go.kr
디자인 한길애드

※ 의정부시 의회소식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의회소식)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 06 발간사
- 08 의정부시의회 구성현황
- 14 상임위원회 소식
- 18 안건 처리현황
- 23 의원발의 조례안
- 28 5분 자유발언
- 49 결의안
- 50 건의안
- 52 의원연구단체 활동
- 54 의정뉴스
- 64 SNS에서 만나요

어 품 가

의정부시의회 의정



발간사

지방자치 부활 30년, 의정부시의회가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의장 오범구입니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로 개원한 의정부시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통과되어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주민주권을 완성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의정부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제50호)는 2021년 1월부터 6개월 간의 안전처리현황, 위원회별 소식,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 발행을 통해 의정부시의회를 이해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
우리 의정부시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의정부시의회 의장  오범구 올림

선거구별 의원현황

가 선거구

- 의정부1동
- 가능동
- 흥선동
- 녹양동



오 범 구 의원
(무소속)



조 금 석 의원
(국민의힘)

나 선거구

- 의정부2동
- 호원1·2동



김 영 숙 의원
(무소속)



김 정 겹 의원
(무소속)



구 구 회 의원
(국민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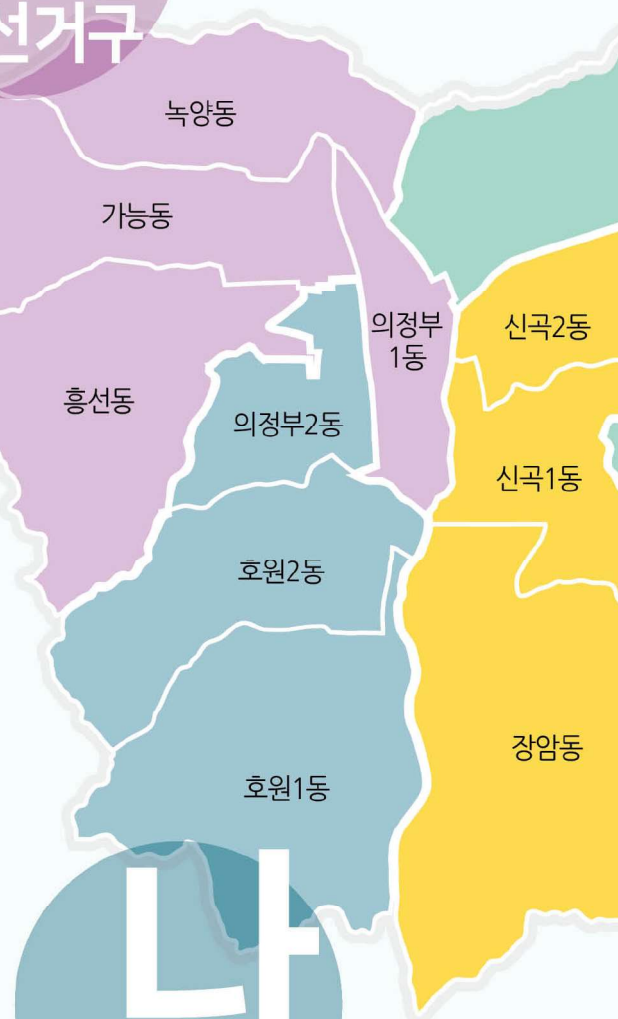
가 선거구

- 의정부1동
- 가능동
- 흥선동
- 녹양동



나 선거구

- 의정부2동
- 호원1·2동



라

선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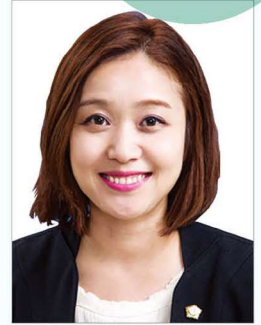
• 송산1·2·3동



이 계 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 지 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주 의원
(국민의힘)

라

선거구

• 송산1·2·3동
• 자금동

자금동

송산3동

송산2동

송산1동

다

선거구

• 장암동
• 신곡1·2동



김 연 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 호 석 의원
(국민의힘)



정 선 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

• 장암동
• 신곡1·2동

비례대표



최 정 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 순 자 의원
(국민의힘)

후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의 장



오 범 구 의원
(가선거구, 무소속)

부 의 장



구 구 회 의원
(나선거구, 국민의힘)

운영위원장



조 금 석 의원
(가선거구, 국민의힘)

자치행정위원장



박 순 자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도시 · 건설위원장



김 현 주 의원
(라선거구, 국민의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기 등 의회 관련 규정의 제·개정, 의회사무국 소관의 업무를 관장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금석 위원장
가선거구 / 국민의힘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김영숙 부위원장
나선거구 / 무소속
(의정부2동, 호원1·2동)



김현주 위원
라선거구 / 국민의힘
(송산1·2·3동, 자금동)



김정겸 위원
나선거구 / 무소속
(의정부2동, 호원1·2동)



최정희 위원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동/주민센터,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의정부시의 예산 및 조직운용 등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



박순자 위원장
비례대표 / 국민의힘



김영숙 부위원장
나선거구 / 무소속
(의정부2동, 호원1·2동)



구구회 위원
나선거구 / 국민의힘
(의정부2동, 호원1·2동)



임호석 위원
다선거구 / 국민의힘
(장암동, 신곡1·2동)



김연균 위원
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장암동, 신곡1·2동)



최정희 위원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도시 · 건설위원회

도시 · 건설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건설국, 균형개발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의정부시의 도시 계획수립과 교통 등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



김현주 위원장
라선거구 / 국민의힘
(송산1·2·3동, 자금동)



김정겸 부위원장
나선거구 / 무소속
(의정부2동, 호원1·2동)



조금석 위원
가선거구 / 국민의힘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정선희 위원
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장암동, 신곡1·2동)



안지찬 위원
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송산1·2·3동, 자금동)



이계옥 위원
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송산1·2·3동, 자금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제304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다.

또한 제305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였고,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청취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304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제305회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등 8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의정부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청취와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다.

제304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다.

제305회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7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 주민청원」 및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청원」 등 청원 2건을 심사하였다.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의정부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 의건서 2건을 채택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4회 임시회 임호석 위원장

의정부시의회는 제304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호석)를 구성하여 총 규모 1조 3,519억원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김현주 위원장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주)를 구성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안건처리현황

(2021. 1. ~ 6.)

2021년 전반기 의회는 1월 18일 제30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번의 정례회 및 3번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과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회기별	유 형 별												시정 질문	5분 발언
	계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청원	기타 의안		
		제정	개정	폐지										
계	94	17	34	－	1	7	11	3	9	1	2	9	－	22
제303회	11	1	7	－	－	－	－	－	2	－	－	1	－	3
제304회	19	4	6	－	1	3	－	－	2	－	－	3	－	8
제305회	30	4	12	－	－	2	6	1	2	－	2	1	－	5
제306회	34	8	9	－	－	2	5	2	3	1	－	4	－	6

제출 및 의결 유형별 처리현황

구분 회기	제 출					의 결				보류	본회의 미회부
	계	의원	위원회	시장	청원인	계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의견서 채택		
제303회 ~ 제306회	94	46	9	37	2	90	84	4	2	1	3

제303회 임시회 의결 결과

임시회 기간: 2021. 1. 18. ~1. 27. [10일간]

일련 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발의 · 제출자 (담당부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건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행정과
2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교육청소년과
4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문화관광과
도시 · 건설위원회 소관 3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정선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정선희(대표발의), 최정희, 김연균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김정겸 의원(대표발의) 등 13명



제304회 임시회 의결 결과

임시회 기간: 2021. 3. 15. ~ 3. 26. [12일간]

일련 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발의 · 제출자 (담당부서)
공통사항 2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기획예산과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회계과
운영위원회 소관 1건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정겸(대표발의), 조금석, 김영숙, 김현주, 최정희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구구회(대표발의),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김영숙, 김연균,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임호석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임호석(대표발의), 오범구,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김연균,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김연균 의원(대표발의) 등 13명
의원발의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정선희 의원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원안가결	기획예산과
2	의정부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행정과
3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원안가결	홍보과
4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여성가족과
도시 · 건설위원회 소관 3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한철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영숙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안지찬 의원
1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운영비 분담 동의안	원안가결	도시철도과

제305회 임시회 의결 결과

임시회 기간: 2021. 4. 19. ~ 4. 23. [5일간]

일련 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발의 · 제출자 (담당부서)
공통사항 2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박순자(대표발의), 구구회, 조금석, 김현주, 임호석, 김영숙, 김연균,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김영숙 의원(대표발의) 등 13명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행정과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세정과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회계과
5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보육과
6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문화관광과
7	의정부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체육과
도시 · 건설위원회 소관 11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정겸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 의원
1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토지정보과
2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도로과
3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원순환과
4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원순환과
5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원순환과
6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녹지산림과
청원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	본회의 불부의	정선희, 임호석, 김연균 의원 [소개의원]
청원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에 관한 청원	본회의 불부의	김정겸, 박순자 의원 [소개의원]
결의안 1건			
의원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결의문 채택	구구회 의원(대표발의) 등 13명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의결 결과

임시회 기간: 2021. 6. 8. ~ 6. 30. [23일간]

일련 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발의 · 제출자 (담당부서)
공통사항 3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회계과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기획예산과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고서 채택	
운영위원회 소관 1건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최정희(대표발의), 조금석, 김영숙, 김현주, 김정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6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김영숙 의원(대표발의) 등 13명
의원발의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최정희(대표발의), 임호석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임호석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임호석(대표발의), 구구회, 박순자, 김영숙,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현주(대표발의),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임호석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불부의	정선휘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김정겸 의원
1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행정과
2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의정부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5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원안가결	
6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세정과
7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8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정책과
도시 · 건설위원회 소관 6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임호석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민 · 관 · 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구구회(대표발의), 임호석 의원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서 채택	도시과
2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서 채택	균형개발과
3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원안가결	투자사업과
건의안 2건			
의원발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건의문 채택	임호석 의원(대표발의) 등 13명
의원발의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건의문 채택	박순자 의원(대표발의) 등 8명

의원발의 조례안



정 선 희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주요내용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기준 및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안 건 명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정선희 의원(대표발의),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정평가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임대료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안 건 명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956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제정사항을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 정 검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정검 의원(대표발의) 등 13명 의원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정부시민 및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정검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효율적인 연구결과의 활용 및 공유를 위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회의 결과 통지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의원발의 조례안

안 건 명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정겸 의원
주요내용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도시를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 및 경사도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

안 건 명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정겸 의원
주요내용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향상되면서 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따라 체육 소외 계층에게 체계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 지 찬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발 의 자	안지찬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에 따른 신청 및 지급절차, 환수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 영 숙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영숙 의원
주요내용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건 명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영숙 의원(대표발의) 등 13명 의원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법」(법률 제17168호)이 제정·시행(2020. 3. 31.)됨에 따라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구 구 회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구구회(대표발의),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김영숙, 김연균,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정하고자 함.

안 건 명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구구회(대표발의), 임호석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와 군부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규제에 의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임 호 석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임호석 의원
주요내용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각 동 체육진흥회와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건 명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호석(대표발의), 오범구,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김연균,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 대상자를 주민등록상 의정부시민 및 관내 직장 종사자로 완화하여 체육시설 활성화와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안 건 명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호석 의원
주요내용	노후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로 확대하여 열악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원발의 조례안

안 건 명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임호석 의원
주요내용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건 명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임호석(대표발의), 구구회, 박순자, 김영숙,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 순 자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박순자(대표발의), 구구회, 조금석, 김현주, 임호석, 김영숙, 김연균,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입학축하금을 의정부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 계 옥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
주요내용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안 건 명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

안 건 명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
주요내용	정부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 시가(市歌)를 추가하여 의정부시의 위상과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기 제작 시 깃봉과 깃대의 준용 규정을 추가하여 시기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건 명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주요내용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의정부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최 정 희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최정희(대표발의), 임호석 의원
주요내용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 의 자	최정희(대표발의), 조금석, 김영숙, 김현주, 김정겸 의원
주요내용	청원서의 보완요구 사항 및 불수리 사항 등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



김 현 주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현주(대표발의),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임호석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의 목록이 변경됨에 따라 '인스타그램'(신설)과 '유튜브'를 추가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공모전 참가자에게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위해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 홍보를 강화



행정기관 야간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일숙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숙직 직원에 대한 평일 대체 휴무 실시로 인해 업무 공백 발생하며,

둘째, 잦은 숙직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가 상승함으로써 능률 및 생산성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향후 어떠한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지 모르겠으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공무원의 이중적인 업무 처리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의정부시 당직실 예산시(총 2억 9,846만 8천원)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직실 운영비가 월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 일숙직비가 6만원씩 2,390명으로 총 1억 4,34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당직보강(비상대비)로 6만원씩 2명으로 30일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 당직근무는 행자부 훈령(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수칙)에 의거(자치단체의 규정)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등에서는 당직근무를 외부용역(아웃소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례로서는 서울구청 25곳 가운데 19곳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등으로 '숙직 전담 직원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시 일숙직비가 1억 4,340만원입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5명 정도의 전담직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한 방호경비는 원격방호체제로 대체하여 유인당직을 폐지해야 합니다.

셋째, 재해상황실 운영 등 평시 위기관리와 연계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로써 공무원의 워라벨(Work-life balance)추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김 정 검 의원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의정부시와 노원구의 진정한 상생발전사업이 되길 바라며

동영상



요즘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함께 추진하는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민-관, 민-민의 입장이 찬성과 반대의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에 제안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장암동의 부지는 그린벨트 등 각종규제로 묶여있는 땅이지만 앞으로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중심으로 명성과 지위를 지켜나가고, 공공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땅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1997년 3월부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및 개발을 통하여 약 27만 7,000㎡ 부지에 혁신성장산업거점이자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2020년 11월 서울시-노원구-서울대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이전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원구의 꿈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했으므로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서울시의 현안사업이었고 의정부 시민의 반대가 예상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의정부시는 경제효과 및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 투명한 자료를 내놓아야 하며,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가 아닌 반대주민과 의정부시 양측이 선임한 패널들을 통해 토론회부터 개최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전략적인 의정부시의 미래와 청사진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큰 제안을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에 드립니다.

첫 번째,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에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참여했다면 이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장암동에 있는 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이전사업을 추진한다면 협의금 500억 수준이 아닌 노원구와의 1대1 공동사업을 제안합니다.

노원구의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전체의 계획과 주민의 토지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특별사업팀을 구성하여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때 비로소 의정부시는 노원구와 상생발전할 것입니다.

임 호 석 의원



거대 공기업 LH는 의정부시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수용하라

동영상



임 호 석 의원

올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10일, 의정부 고산동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한 의정부시민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 개통 첫날, 신문배달을 하며 슬하에 남매를 둔 50대 가장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날 오전까지 공사 중이었던 도로는 2월 9일 왕복차선이 모두 개통되자 기존의 3개 차선은 한쪽 방향의 차선으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로 신문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은 이 내용을 모른 채 평소처럼 운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평상시처럼 다니던 길에서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료를 통해 알아본 결과 ‘고산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안 관련 관계기관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회신’에서도 고산지구와 기존 마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설 등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설계가 이뤄지고 개통 하루 만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지만 거대 공기업 LH는 시민들의 정당한 민원 수용은 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와 변명으로만 일관하여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외면한 채 개통이 강행된 고산대로는 너무도 큰 문제점으로 원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의정부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설계된 고산대로의 교차로는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LH의 분양 수익과 상가부지의 배치를 위해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말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LH가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불편없이 내 집으로 다니던 길이 어느 날부터 신호등을 거쳐 수백미터를 돌아 유턴을 해야 드나들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것을 어느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이번 고산동의 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또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산동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살피주시고 의정부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LH의 책임있는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분노한 민심을 어루만져주지 않는다면 성난 시민과 국민은 LH란 커다란 배를 민심의 바다에 침몰시킬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공기업 LH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산동 주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목소리를 수용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의 반환공여지는 의정부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공공의 재산

동영상



임 호 석 의원

의정부시의 반환공여지는 의정부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공공의 재산이며,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류 저장소로 사용되었던 곳, 지금은 '나리백씨티조성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캠프-시어즈'의 잔여부지와 관련하여 오염관련문제와 공공사업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염관련 문제입니다.

정부예산을 들여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 4월 '정화준공'이 승인된 토지에서 몇달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양의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화준공'의 시점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오염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개발될 다른 공여지도 재발방지를 위하여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많은 토사가 반출정화를 위하여 해당부지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염토사의 반출사유를 "공사진행 중 확인된 오염이어서 반출을 승인하였다"라고 하지만 오염토사의 반출로 인한 흙먼지와 기름냄새에 의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상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는 오염물질 제거 이후 시작되어야 하며 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하여야

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은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사업에 대한 관리입니다.

'공여지사업'은 사업자가 민간이라 하더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제13조에 의해 정의된 명백한 '공공사업'입니다.

나리백씨티개발은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전체를 재투자하여 체험관 등을 만들고 재단을 설립한 후 기부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시행사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인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단설립에 대한 어떠한 계획의 제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염토정화의 문제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아닌 민간사업자 스스로 정화책임자가 되어 정화공사를 진행하기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한 만큼 정화비용 등의 문제는 민간사업자 자체의 문제이며 이를 빌미로 개발계획의 변경 등을 진행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리백씨티개발'의 경우 공사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은 제출되었으나 그 외 핵심 콘텐츠 등과 관련된 별도의 계획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되어 공사가 시작된 현 시점에 목적사업의 주체가 신뢰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의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전반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한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하여

동영상



최근 의정부시의회의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찬성과 반대 시민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의는 '의정부시의회의 청원 심사 규칙'에 의거 처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나 미흡한 행정 처리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시민 청원은 지역시민들이 시의 주요 현안이나 시책에 대해 직접 시민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제도로서 많은 타 지자체는 온라인청원을 통해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연 의정부시는 어떻습니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법적 근거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GB해제는 법적으로 지역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GB해제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집행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전 검토를 통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40만명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창출 증대가 있다고만 하는 말뿐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요.

현재 운영 중인 노원구와 의정부시 면허시험장 주변 상권의 경제효과는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주민소통입니다. 일방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이 선정하는 패널 참석을 통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집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방송과 온라인을 활용한 토론회 개최는 주민 중심의 또 다른 좋은 행정서비스일 것입니다.

넷째, 투명한 자료공개입니다. 의정부시는 2월 26일 노원구와 2차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리도 급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요?

충분한 주민 소통과 투명한 자료공개를 통해 꼼꼼한 분석과 협의 내용을 의정부시의회의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킨 후 노원구와 협상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이 반대와 찬성 의견의 대립이 아닌 의정부시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어떠한 선택이어야 하는지 법적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차분히 의정부시 미래를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 선 희 의원





조례 제·개정의 문제점과 심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영상



정 선 희 의원

금번 제306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조례 심의로 회기 중의 의견들이 반영되어 시정되고 개선되어 의정부시 시민의 삶과 시 발전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의정부시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치행정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금번 제306회 정례회에 본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상임위에서 의원의 발언권도 존중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중예산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찬성서명을 한 의원조차 반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지원 조례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재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2개(경기남부 4개, 경기북부 4개)가 이미 제정되었고 제정 추진 중인 타 시·군(양주, 동두천, 연천)들도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심사하는 과정은 무수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파도 사익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은 의원 스스로에게 있으며 의정부시의 역사에 기록되고 의정부 시민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정 이후 경기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20년 2억9천5백만원, 21년 상반기 2억7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예산을 10억원 규모로 확대토록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의 대상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지원은 서로 다른 것으로 지자체의 근거가 있어야 지원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경제에서 특히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조직화함으로써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및 마케팅, 공통기술개발, 단체표준, 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이를 위해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지원 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당한 절차와 법적 근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부결이 타당과 자당의 표결에서 그저 정치적인 숫자로 조례가 훼손된 것이라면 정치적 행위로 불이익과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의정부 시민, 중소기업인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소망하며 앞으로 더욱 더 동료의원분들과 함께 의정부 시민들이 부여해주신 소명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8호선 별내~의정부 연장

동영상



정 선 희 의원

어제 6월 29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광역철도 연장과 경기북부 발전 미래상’이라는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노선에 대한 추가 검토 계획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기도의 북부는 수년간 중첩된 규제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 왔으며 교통분야에서 조차 남부에 비해 열악한 상태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입니다. 8호선 별내~의정부 연장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가치실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경기순환철도망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체계를 다핵분산형으로 변화시키고 경기 지역 간 통행의 철도이용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고양~의정부를 연결하는 교외선 구간과 8호선 별내~의정부 연장은 경기순환철도망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8호선 별내선은 별내~별가람 연장이 지난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에서 이번에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는데 이어 8호선 별내~의정부 연장 사업의 추가 검토는 앞으로 신규 사업 채택과 동시에 경기북부권의 교통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 을)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었다면 8호선 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선 앞으로 더 많은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정부시의 의지와 구체화된 도시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역의 기능은 단순히 교통의 수단을 뛰어넘어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편의뿐만 아니라 쇼핑과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변 개발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원들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이 뜻을 모아 8호선 별내~의정부 연장이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순위의 정책을 펼쳐라!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인구 감소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정부시의 출생자가 매년 급감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면서 의정부시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차별화 정책을 확대하고 우선정책 실현에 집중하길 바라고 모든 정책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배려가 실시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은 국가의 주도로 국가가 앞장서야 당연하지만 그 중심에 각 지자체의 섬세한 정책이 따라야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의정부시만의 인구정책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가정 한자녀 두기도 버거운 시대이지만 다자녀에 대한 우리 시의 정확한 기준과 정책지원방안 수립과 시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의정부시의

자랑이 되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저출산 장려에 대한 역할에 좀 더 적극적이고 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생애 최초 내집 마련과, 무주택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으로 특별분양은 있었지만 어쩌면 생애 최초 내집 마련보다 더 다급한 다자녀를 둔 가정이 작은 평수에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겨야하는 절박함에도 아무런 기준과 혜택이 없어 선택 받지 못한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과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길 요청합니다.

만약에 본 의원에게 어떤 결정권과 권한이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다자녀를 둔 가정이 집 걱정없고 이사할 걱정없이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라고 말입니다.

저출산의 심각성과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역의 민심부터 수습하는 것도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계획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게도 특별분양의 자격을 우선 순위에 두는 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히 검토하고 실행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 순 자 의원





의정부시 특화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하라!

동영상



박 순 자 의원

천혜의 자연경관이 고스란히 우리 시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의정부라는 자부심과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원도봉산과 수락산, 사패산, 홍복산, 천보산, 부용산을 병풍 삼아 가깝게는 임궽정의 놀이터였다는 양주시의 불곡산까지 자연환경을 선물로 안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의 장점을 살려보고자 의정부만의 특화거리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100세 시대에 진입한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첫째가 건강이 행복의 조건으로 알고 그 어느 때보다 자연과 함께하며 건강을 챙기는 등산과 트래킹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1호선 망월사역을 이용하여 원도봉산을 즐기는 사람들과 7호선 장암역을 이용하여 수락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 여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특화거리 조성에 좋은 아이디어와 지역경제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망월사를 향한 원도봉산 진입로 일대와 장암역을 이용한 수락산 진입로 일대를 특화거리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감히 요청합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어언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 어느 곳을 다녀봐도 그곳만의 특화거리가 있고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는 개성있는 사업의

상징적인 장소가 있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8개의 미군 반환공여지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고는 하나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없고 의정부시를 내세울만한 상징적인 모습이 없어 늘 많이 아쉽고 답답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특화거리 조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호선과 7호선 전철역과 경전철을 활용한 의정부만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이 혼합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개발과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수락산과 원도봉산 입구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의정부만의 특화거리 조성사업 계획을 제안합니다.

먹거리만 있는 특화거리가 아닌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통합의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부시 발전종합계획에 대하여!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의정부시 발전의 100년 미래를 대비하고, 기회와 도약의 의정부시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완성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60여 년간 시내 곳곳에 주둔한 미군 부대와 군부대로 기형적인 도시개발과 군사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에 주둔한 8개의 미군기지 이전과 예비군 훈련장, 306 보충대를 포함한 군부대 이전으로 의정부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100년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기회와 도약의 순간에 섰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캠프 잭슨을 비롯한 캠프 스탠리, 캠프 CRC 등 미군 공여지와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지난 2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 100인과의 랜선 토크콘서트에서 향후 의정부시의 개발계획을 묻는 시민의 질문에 캠프스탠리는 전체 면적 중 삼분의 일을 e-커머스 물류단지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당초 계획했던 시니어시티로 개발하며, 또한 기능동요지에 위치한 CRC도 e-커머스 물류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10여 년간 계획했던 안보네마공원 조성사업은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10여 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구상한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계획이 변경되는 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당혹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발전에 대표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던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스탠리와 CRC를 e-커머سر란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기회와 도약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정부시는 지금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고 100년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도약할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계획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차한 도시 발전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그동안의 시대적인 변화를 잘 살피고 분석하여 의정부시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의정부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 구 회 의원



환경오염에 관해서

동영상



구 구 회 의원

본 의원은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우리 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의정부시를 비롯한 전국 80개 지방정부는 지난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면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습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까지 제한하고자 노력한다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행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도 중앙정부가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지난 12월 확정하였고, 우리 시는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행동은 협약체결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한 공적인 영역에서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만으로는 국가적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 또한 자원회수 및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개소에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이 정부의 할당량을 매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예산으로 7억 6,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시와 전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며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의정부시와 각급 학교 등에서는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시민교육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에는 가칭 탄소중립이행법이 제정됩니다. 시대의 환경변화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캠프 잭슨에 이건희 컬렉션 유치 건의

동영상



구 구 회 의원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문화재 및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선보이는 미술관 신설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감상하기를 바라는 기증정신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유치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등이 잇달아 유치 희망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경기도 남북의 균형발전을 내세워 북부지역 유치희망 의사를 밝혔고, 우리 의정부시도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문체부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 빠른 대처와 노력에 대해 안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 하였고, 여덟 개의 미군부대가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두 개의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반환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60년 동안이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우리 의정부시민들에게 이제는 보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의정부시민들은 국가로부터 보답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의정부시민들은 국가 정책상 국토 균형적 발전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경기북부의 수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우리 의정부시는 지난 해 12월에 반한 결정이 된 ‘캠프 잭슨’에 문화예술을 테마로 하는 복합형 단지 조성을 반한 결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병용 시장님께서 ‘캠프 잭슨’에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의 최적의 장소는 ‘캠프 잭슨’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전부터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과 방향성이 일맥상통하며, ‘캠프 잭슨’의 부지는 도봉산자락의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고, 전철 1, 7호선과 광역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의정부 시민들은 물론이며, 타 지역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고려했을 시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한 60여 년이 넘는 인고의 시간에 대한 의정부시민들의 희생에 대하여 보답을 해주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소통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의 유치를 돕겠습니다.



교육자치에 대하여

동영상



구 구 회 의원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25일에 개최된 2021의정부 포럼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교육 발전방안’에서 심익섭 행정혁신위원장이 기조강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핵심 내용 중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이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또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교육자치와 주민의 안녕을 위한 자치경찰은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실현에 양대 목표가 된다는 주장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면 교육감 직선제 도입 등 교육자치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교육 행정의 체계만을 바꾼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육의 행정체계 변경만으로는 혁신교육은 성공한다고 보장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교육자치 이제는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의정부포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교육을 이끌어가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내실이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시군Ⅲ 사업을 진행하는 등 발빠른 혁신교육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혁신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교육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의정부시형 마을교육공동체’의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교육은 마을교육공동체로의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교와 마을이 공동으로 마을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함께 협력교육사업을 진행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대해 책무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여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자치와 주민자치의 결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마을주민이 서로에게 배우며 더불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와 지역의 총체적 변화를 도모하고 교육 운동을 넘어선 사회운동적 의미도 갖게 됩니다.

의정부시는 교육의 선도도시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시군Ⅲ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교육 인프라 지원과 동시에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으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를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정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교육지원청, 교육 관련 기관, 단체, 지역의 협업으로 새로운 형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지난 3월 교육협력지원센터의 개소로 초기 인프라의 기반은 마련됐다 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 모든 사업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 제가 힘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순환철도망 구축을 위한 제언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29일 적기개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놓고 의정부, 양주, 고양 교외선이 중단 16년 만에 운행재개를 위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교외선에 전철이 달릴 수 있게 하는 복선화 사업에 시동이 걸리며 수도권 순환철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교외선이 운행재개 되더라도 분당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대곡소사선 등으로 연결되는 경기남부 구간에 비해 경기북부구간의 의정부~남양주 구간 약 15km는 여전히 유일한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현재 8호선 연장은 남양주 별내역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별가람역까지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단절구간의 연계를 통해 환상형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청학지구, 의정부 고산지구, 민락지구를 거쳐 1호선 녹양역까지 연장한다면,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복합문화 융합단지과 범무타운, e-커머스 및 을지병원, 을지대학교를

경유하게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8호선 의정부 연장과 교외선의 복원을 통해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실현되면 장차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복원을 추진해갈 경원선 축과도 연계되어 철도 물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경기도 도시 간 이동 시 대중교통이 혼잡한 서울 시내를 통과하지도 않고 직접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의 수준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서북부의 기능·녹양동, 그리고 동부의 민락2지구·고산지구 등이 각각 전철 1호선과 7호선 연장구간에서 소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인 교통 개선요구가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수도권 순환철도 사업을 단순히 예비타당성의 결과로 재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의정부~남양주 간 단절구간 연계를 통해 환상형 순환철도망을 완성하여 경기 북부의 열익한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둘째, 현재 경원선에만 집중되고 있는 이용 수요 분산 및 경원선 축 복원에 대비한 물류 기반 확보, 셋째, 경기도 도시 간 이동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 넷째,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잠재적 경제이익 개발, 다섯째, 의정부 관내 동서축 철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간 대중교통 접근성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8호선 의정부연결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것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기관에 제언합니다.

김 현 주 의원



우리 시 계단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정부시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계단의 중요성과 운동방법을 제시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은 몸 실천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리기는 특별한 장비나 도구가 필요없는 저비용 시민 건강증진 운동입니다. 우리 시 6개 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한번쯤은 이용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여러 위험한 각 계단의 종류를 오르내리셨을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노약자,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6개 천변에 총 102개의 계단과 55개 징검다리, 104개 경사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단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께서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현실입니다. 시민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20바퀴 돌겠다는 목표를 세워도 계속 똑같은 운동장이라는 트랙을 돌아야 하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지쳐서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은 층수가 보이기 때문에 10층까지라는 목표를 잡고 운동을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의정부 시민의 건강증진에 큰 효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적어도 우리 시 6개 천변의 돌계단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안전성이 보장된 계단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및 재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연균 의원



옥외광고물 정책방향 관리개선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아름다운 미관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에 크기는 점차 커지고 화려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광고 수단의 역할뿐 아니라 도시경관을 좌우하고 도시에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코로나 이후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 현재까지 식품업소 폐업현황을 보니 전체 업소수 중 역세권 주변 상가만 600건수로 폐업한 실정이며, 학교 앞 골목상권들도 폐업의 숫자가 늘어가며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된 간판들로 미관이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과 제3호 청소년 보호 선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 부착뿐 아니라 제작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물의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10년전 노후 간판 개선사업으로 행복로와 부대찌개거리 등 택지개발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녹양역앞 상가일부와 민락동 상가일부에만 개선되었고, 여전히 의정부2동 신시가지 거리는 미풍양속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 등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들이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적 전단지들이 곳곳에 붙어 있거나 뿌러지며 우리들에 희망인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시 옥외광고물 중 다수가(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확보한 과태료 및 수수료를 적립 기금으로 활용하는 의정부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수입이 적어서 시민수거보상제를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한 정책으로 광고주, 폐업주의 심정을 헤아려주시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석 의원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보편지급의 필요성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리, 월경 이런 말들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일상에서조차 ‘그날’ 또는 ‘마법’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생리대는 검은 봉지나 작은 손가방에 숨겨 화장실에서나 열어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사회문제로 인해 월경은 숨겨야 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겨졌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도와 시가 각 25%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선별지원정책은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저소득층임이 밝혀졌을 때의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이지만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양육자가 지원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홍보 부족으로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 등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지급방식은 너무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9월 14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생리용품의 보편 사업으로의 전환 방침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편지원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에서 보편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14개 시·군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인타깝게도 예산상의 문제로 도입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2021년 3월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지급은 생리대를 지급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낙인효과를 주고 이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기본권,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한 여성만을 선별해서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서 우리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공적 보건서비스라는 점을 이제는 인식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건강에 의무교육을 통해 누구나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듯이, 최소한 공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역사회가 나서서 돌봐주는 선진행정의 의정부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동영상



최 정 희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5월 13일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 소유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무면허이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며 또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불확실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현황파악이 시급합니다.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킥보드 대여 사업자 현황이나 사고건수도 파악된 바 없으며 관할부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사해보니 4월 현재 의정부시는 총 3개의 업체가 약 630여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겨우 직원 1명이 평균 70여 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인허가 없이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해서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고는 해도, 기본현황 정도는 시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프라 확충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하나 도심지 내 자전거

도로가 매우 부족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이나 보도를 이용하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시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 곳이나 세워진 전동 킥보드는 노인이나 시각 장애인에게는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이에 전동 킥보드 등록제 실시,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불법 방치 시 견인료 부과 등의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시가 선제적으로 홍보에 나서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자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동 장치를 끈 채 끌어서 보행해야 하는데, 차도에서처럼 운행할 경우 보행자는 상당히 위험하므로 안전교육 실시, 이용 가이드라인 적극 홍보 등을 통하여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여 사고 시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부 시가 작곡 공모 희망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넘어 102주년을 맞는 해 역사 바르게 세우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의정부 시민의 노래는 의정부시의 자량과 비전을 담은 노래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정부 시가를 작곡한 김동진은 1930년에서 40년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위해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가 지난 1989년 개정 발간한 친일인명 사전에 친일음악가로 공식등재한 상태입니다. 김동진은 만주작곡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활동을 하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곡을 만들었으며, 일본의 대동아 공영 건설을 찬양하는 건국 10주년 경축곡 등을 작곡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독립민족의 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11월 6일 일제강점기 국난 극복과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의정부시 일원에서 거행된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고자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민족성을 지니고 역사성을 가진 숨겨진 보화를 지닌 자랑스러운 의정부시입니다.

현재 불렀던 의정부시민의 노래는 중단해야 합니다. 공모를 하여 일본의 잔재를 버리고, 의정부시의 자량과 정서와 특징을 담은 곡으로 시가를 만들고, 희망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꾸는 행복도시 의정부시가 되어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1월 6일에는 우리나라 꽃 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습니다.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고 피어서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사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무궁화 꽃을 심지 않는 꽃을 뒤로 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4월 봄의 계절은 식목의 달입니다. 무궁화 심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온 독립투사에 대한 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에 맞는 희망을 담기는 의정부시의 노래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곳곳에 우리나라 꽃 무궁화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 옥 의원





의정부 G&B 사업에 대한 실천 방향에 대하여

동영상



이 계 옥 의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면서 의정부시는 그동안 계획했던 녹색환경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G&B 프로젝트는 도시숲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초미세먼지와 폭염 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숲 등 녹색공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증가 시 폐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이 도심의 초미세먼지를 40.9%까지 낮추어 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문제는 온난화 현상입니다. 어제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G&B 프로젝트는 지구를 가꾸는 사업에도 큰 몫을 합니다.

푸르름은 또한 기온저감 효과도 있습니다. 가로수가 있는 보도의 표면온도는 평균 2.7℃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공원과 녹지는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녹색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숲세권’, ‘공세권’ 용어가 등장하는 등 녹색환경의 사회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계기로 제안드립니다.

보육원을 종료하고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출발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챙기고 살피는데 적극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의정부시는 보호 종료를 마친 후 1,000만원과 매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그러나 보호자 없이 홀로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경기도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위기의 집 밖 아이들,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동영상



이 계 옥 의원

행정감사를 마치고 개선할 점과 협조할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짧은 기간에 업무를 파악하고 결산을 감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제게 주어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따져 묻는 질문에도 성실하게 설명해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하여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민원입니다. 택시센터 건립은 2019년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만, 2021년 올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건평 건축 260㎡ 쉼터를 짓는데 3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은 계획된 사업을 움직이고 투자하고 지원하고 생산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정지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원버스 연합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학원버스 운행은 제대로 못했다. 버스를 검사받는 과정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선팅을 제거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은 48만원이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촘촘하게 확실하게 계획하고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재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해주시면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감염의 속도가 더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위협하고 바짝 긴장하게 합니다. 앞으로는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하는 긴장된 사회의 현상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 HIV 132명, 에이즈보균자는 무려 312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로부터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무려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변이 바이러스에도 각별한 대책을 요구드립니다.

‘바이러스’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항상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2년 반이나 고생하셨던 이종원 보건소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 리얼돌 민락동에 개업한다는 소식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은 놀란 마음에 또 다른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김영희 회장님과 회원들이 청소년 지도에 나섰습니다. 한수완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과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에서도 함께 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역할 분담을 잘해주었으며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청소년 지키기에 함께한 것이 사업주분의 마음을 움직여 폐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침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주시고, 어린이 집을 꾸미고 가꾸는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없는 영아원 아이들에게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영아원에도 환경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4. 2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동영상



※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구회 의원 등 13명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발생한 원전 오염수 125만 톤을 저장상 한계를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의 상당 부분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기준치 2만 배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며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가역적인 행위로, 이러한 결정은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46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상으로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이를 규탄하며,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21.)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동영상



※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호석 의원 등 13명

지난 2014년 5월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 시 관리청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없이 공공시설물을 인계인수 하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지구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에 대한 권한을 공공시행자인 LH 등에게 위임토록 규정하여 준공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시설물 보수·보강 등의 행정요구권한을 막았으며,

인계인수에 관한 종전 규정에는 준공 30일전까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완료 후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불합리하게 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는 직접 준공검사권자로서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 통지함으로써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할 관리청과의 상호 협의없이 공공시행자인 LH가 독단적인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준공처리함으로써, 추후 택지지구 내 기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업무가 수반되며, 향후 관리청에서 부실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이다.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 6. 30.)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동영상



※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 등 8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탈 시설의 꿈은 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많은 장애인들이 긍정적인 삶의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중증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 준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아직도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수가임에도 돌봄의 난이도가 높아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쉽지 않고, 또 활동지원사를 어렵게 구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아니면 돌보기 까다로워 결국 가족이 함께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섬, 벽지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 활동지원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장애인활동보조 가족 지원 허용을 요청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것도 최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 수입이 없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처절한 외침일 것입니다.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재,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은 제대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반쪽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직계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지원 사업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이 1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정부는 왜 최중증장애인 가족들은 직계가족의 활동 지원사 자격 허용을 바라는 것일까 깊이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최중증장애인 가정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 및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의정부시의회 5개 연구단체 가동,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기대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021년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올해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는 ▲지방행정 연구회(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체육 행정·복지 연구회(김연균, 정선희, 김영숙), ▲태권도 공연·문화콘텐츠 연구회(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향토문화 연구회(임호석,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숲체험 및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안지찬, 이계옥)로 총 5개 단체이다.

이를 위해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에서는 지난 3월 15일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연구단체의 활동 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의 각 대표 의원을 통해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5개 연구단체의 활동을 승인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지난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제시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현장을 발로 뛰는 생생하고 열정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연구결과를 기대한다”며 연구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연구단체의 활동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연구활동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올해 5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모두 완료했다.

각 연구단체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전문 연구원과 함께 연구방향, 중점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집행부 담당자,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범구 의장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 사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오는 8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행정 연구회



체육 행정·복지 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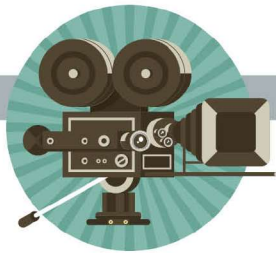
태권도 공연·문화콘텐츠 연구회



향토문화 연구회



숲체험 및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제303회 임시회 개최

신축년 새해 첫 회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심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첫 회기인 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26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27일에 제2차 본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포함하여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 주요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46만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는 1991년 개원한 지방의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민을 위한 뜨거운 마음을 반석삼아 시민 여러분께서 부활시켜 주신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날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의정부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겸 의원이 「행정기관 야간당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제303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월 27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임호석 의원과 정선희 의원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김연균, 최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의 3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다음 제304회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2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윤신일)에게 2021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전달식은 의정부시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오범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김양숙 부회장, 북부봉사관 강성욱 관장, 의정부지구협의회 우미자 회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국내외 재난구호활동, 국내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지원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긴급재난구호 및 봉사에 헌신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적십자회비가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정부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뉴스

2월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5일, 8일 양일 간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정부영아원, 나눔의 샘 양로원, 여자청소년쉼터, 꿈이 있는 땅 4곳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범구 의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웃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은 항상 곁에서 함께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뵙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설날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향 방문이 어렵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후원물품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를 만드는데 시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5일 의정부시의회의 3층 의원 회의실에서 시의원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에는 가림막이 설치되고 체온 측정, 청사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건전한 성 가치관을 높이고 양성이 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교육 강의를 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강사는 성폭력,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개념 설명과 직장 내 성폭행 피해 내용, 성희롱의 일반적 사건 유형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부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

2021년 신년 현충탑 참배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5일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 새해 자일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였다.

이 날 참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의정부시의회의 의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범구 의장은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13명 의원 모두 힘을 합쳐 현장 중심의 의회로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여 46만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뉴스

3월

제304회 임시회 개회 - 12일 간 일정으로 14개 안건, 심도 있는 심의 -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 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김현주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4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24일과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26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한 의정부시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 및 안건을 심의할 것이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304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3월 26일 오전 11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김연균, 조금석,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이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최정희 의원 외 민간 위원 4명이 선임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호석 위원장과 김연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구구회, 정선희, 김정겸 의원으로 구성되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월 24일, 25일 2일 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당초 예산액보다 827억 6,415만 원이 증액된 1조 3,519억 5,575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정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구회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호석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한철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임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의원 발의 8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안건 5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다음 제305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간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의정부시 유치 촉구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31일 의정부시청 신관 교육장에서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시·도의원, 의정부시, 시민대표(의정부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통장협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한국자유총연맹회장)와 함께 의정부시 유치에 대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촉구결의 대회'에 참석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유치인 경기 북·동부 이전을 적극 환영하며, 이 중에서도 의정부시의 비전을 실현시킬 '경기연구원'을 의정부시에 유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의정부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군사도시로서의 희생을 감내해 왔다.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는 경기북부 통일중심도시인 의정부시가 최적지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오범구 의장은 “의정부시는 오늘의 결의를 통해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의 의정부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며, 시·도의원 및 시민대표들께서 각자의 영역에서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목일 맞이 나무심기로 더 푸른 의정부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2일 민락천변 녹지대에서 개최된 제76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에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약 1ha의 행사 대상지를 권역 및 참여자별로 5구역으로 나누어 감나무, 이팝나무, 조팝나무와 우리 시 시화인 철쭉 등 5,000본의 꽃과 나무를 식재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로 간소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식목일 행사를 갖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The G&B 프로젝트 사업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녹색 의정부시를 만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 방문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7일 의정부역 시민정원에 설치한 의정부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개소 준비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는 4월 15일 개소 예정인 의정부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대기장소, 접종, 관찰, 백신 보관 등 4개 구역으로 운영되며, 개소 후 만 7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600명을 목표로 접종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발열측정기, 예진, 접종, 전산등록, 대기 장소 등의 설치 상황을 살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범구 의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길 바라며, 시의회도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의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05회 임시회 개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9일 제30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4월 23일까지 5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박순자, 최정희, 구구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을 처리할 계획이며,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16건,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관련 찬·반 청원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4월 15일부터 시작된 75세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불안과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속도감 있는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사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이 계획되어 있으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속에서도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전 사고나 취약 요인은 없는지 등 세심한 현장점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 -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점검 -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내실있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4월 20일과 21일 양일 간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점검은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현장점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의 관계 공무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김영숙, 구구회, 임호석, 김연균, 최정희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의정부음악도서관 ▶의정부시중소기업지원센터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의 8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주)는 김정겸, 조금석, 정선희, 안지찬, 이계욱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실태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폐기물 선별 실태 ▶신곡근린공원 조성 부지 내 방치폐기물 처리 실태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 ▶의정부 컬링경기장 운영 실태의 7개소를 점검했다.



각 상임위별 해당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추진·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실태와 부실시공 방지대책, 계획 대비 공정을 이행 여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점검 후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요 현안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제305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4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정겸, 이계욱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박순자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김정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욱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4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13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관련 찬·반 청원 2건에 대해서는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발생한 오염수의 방류 공식 발표에 대해 구구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다음,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 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정의 달 맞아, 관내 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13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기능동에 소재한 트윈스지역아동센터의 도망고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고충 청취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는 의정부시의회 오범구 의장, 조금석 운영위원장, 최정희 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하여, 시설 운영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범구 의장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회는 현장을 자주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의정부시의회는 5월 중으로 권역별로 2~3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초등학교체육관 증·개축 사업 현장 방문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간 의정부관내 초등학교체육관 증·개축 사업 현장 6곳을 방문하였다.

이 사업은 심각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 체육 및 지역체육 활성화를 통해 함께 공유하는 지역사회 문화체육공간 확보를 위해 의정부시-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이다.



먼저 24일을 시작으로 녹양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와 버들개초등학교, 의정부효자초등학교를 방문하였으며, 25일은 발곡초등학교, 의정부초등학교, 동오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현장을 방문하였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김진선 교육장과 의정부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담당자로부터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범구 의장은 “학교 실내체육관의 건립이야말로 의정부시 학생과 시민을 위한 협력의 결과”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완공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건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문」과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 시·군 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하여, 제155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채택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던 전직 지방의원들의 긍지를 높이고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현직 의원들과 공유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것이며,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통해서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 발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뉴스

6월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6월 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월 30일까지 23일 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한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임호석 의원은 「의정부시의 반환공여지는 의정부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공공의 재산」, 구구회 의원은 「캠프 잭슨에 이건축 컬렉션 미술관 유치 건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6월 8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24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29일 양일 간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후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을 심의한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동안 의정부시 주요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참여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북부보훈지청(지청장 황후연)과 함께 전상군경故배문석님의 자녀인 배인애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명패를 달아드리는 행사를 가졌다.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감사의 뜻을 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명패 대상을 유공자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오범구 의장은 “국가유공자 유족분을 직접 찾아뵙고 명패를 달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이를 수 있었으며, 늘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정선희 의원이 「조례 제·개정의 문제점과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본회의에서는 최정희 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11건 및 시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합리적인 인계인수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이후, 22일부터 29일까지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에 들어가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3차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장·소통 중심의 의정활동’

여름철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상황 대응 격려 방문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21일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 재해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등을 위해 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보건소를 방문하며 현장·소통 행보에 나섰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1년 여름철 기상 전망 및 중합 대응 상황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건축공사현장, 저지대 주택, 과거 상습피해지역 등의 사전 예찰 강화, 시설물 안전 점검·정비로 여름철 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 환자들의 일상 회복이 가능토록 사후 관리 필요, 코로나 백신 접종기관 확충 및 접종 경로 다양화 등을 주문했다.

오범구 의장은 “그동안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고생이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별히 사각 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의정부시가 되도록 더 많은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안 의결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30일 오전 11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계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정선희 의원은 「8호선 별내~의정부 연장」, 구구회 의원은 「교육 자치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에 관한 전반에 걸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 등 총 165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을 요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 회기는 제307회 임시회로 오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정부시체육회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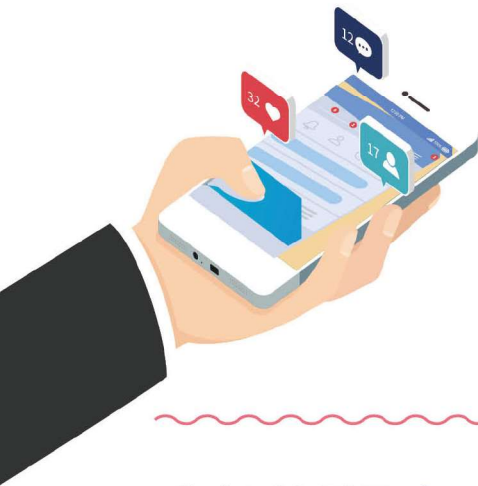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6월 30일(수) 의정부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의정부시체육회 등 체육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체육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발전적 방향 제시와 의정부시체육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계의 정상화 및 의정부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권역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의정부시체육회 송만회 수석부회장은 “더욱 소통하고 면밀히 협의하여 의정부시 체육 복지 실현 및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은 “체육은 개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한다”며, “46만 의정부시민 모두가 쉽게 체육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체육회 및 관계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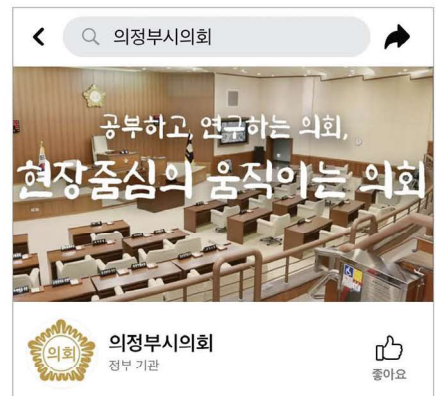


의정부시의회 SNS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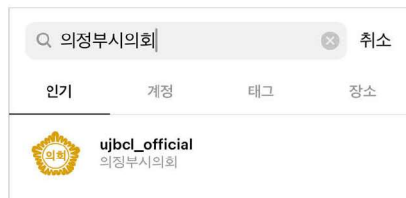
페이스북 친구가 되고 싶다면..



- ① 먼저 '페이스북' 앱을 실행
- ② '의정부시의회'로 검색
- ③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 ④ 의정부시의회와 페친이 된 기념일!!



인스타그램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 ① 먼저 '인스타그램' 앱을 실행
- ② '의정부시의회'로 검색
- ③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 ④ 팔로잉 되었으니 방문해 주실꺼죠!!



시의회 동영상이 있나요?
있어요~!!



- ① 먼저 '유튜브' 앱을 실행
- ② '의정부시의회'로 검색
- ③ '구독'을 눌러주세요
- ④ 이제 시의회 동영상이 내 손안에 쏙!!



방문·방청안내

문의사항
031-828-2542~4

의정부시의회의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의회 홈페이지(www.ujbcl.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후 방청일자에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시면 됩니다. 비회기 중에는 의회 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사전신청)

청원안내

문의사항
031-828-2533

의정부시의회에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판의 간섭, 국가기관 모독,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진정안내

문의사항
031-828-2533

진정서는 시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회소식지 무료 구독 신청안내

의정부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의회소식을 담은 「의정부시 의회소식지」를 반기별로 발간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아래의 구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신청(세대당 1부를 원칙으로 함)

신청서비치 의회 사무국, 의회 홈페이지(www.ujbcl.go.kr)

▲ 이 선을 절취하세요!

의회소식지 무료구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구분		일반소식지 ☐ 점자책 ☐

상기 본인은 의정부시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의 구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의회 의장 귀하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의회소식지 발송자료로만 활용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움직이는 의회



의정부시의회